
- 2024년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2024. 2.



대구광역시의회
[운영전문위원실]

[목 차]

I.	출장 개요	1
II.	출장 일정	2
III.	출장 내용	3
	1. 오클랜드 시청. 오클랜드 시의회	3
	2. 샌프란시스코 복지부	8
	3. LA 시청	11
	4. LA다저스 스타디움	13
IV.	출장 후기	15

- 2024년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I 출장 개요

- 여행국: 미국 서부(샌프란시스코, 라스베가스, 로스 엔젤레스)
- 출장목적
 - 지방의회 운영시스템 비교시찰을 통한 정책개발 및 각국 의회와 상호교류 협력방안 모색
 - 선진 미국의 주민을 위한 정책운영과 복지, 도시재생 등 각 분야별 선진정책연구 및 현장시찰을 통한 벤치마킹
- 출장기간: 2024. 1. 8.(월) ~ 1. 17. (수) / 7박 10일
- 보고서 작성자 : 운영위원장 전경원
- 출장자 인적사항

소속	성명	비고
운영위원회	전경원	
운영전문위원실	이명석	

※ 총 출장인원 : 28명(「붙임 1」 참조)

-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12명
- 시·도의회 담당직원 12명, 협의회 사무처 직원 4

II

출장 일정

일 자	지 역	일 정
1일차 1.8.(월)	인 천 (아시 아나) 샌프란시스코	○ 인천국제공항 출발 (20:50) / 10시간25분 소요 ○ 샌프란시스코 공항 도착(14:00) ○ 샌프란시스코 문화탐방 ○ 호텔 투숙 및 휴식
2일차 1.9.(화)	샌프란시스코	○ 공식일정 : 오클랜드 시청·시의회(City and County of Oakland) ○ 공식일정 : 샌프란시스코 복지부 장애 및 노인서비스부(SFHSA) ○ 도시기반시설 시찰 및 공공시설 탐방 ○ 호텔 투숙 및 휴식
3일차 1.10.(수)	샌프란시스코 요 세 미 티 프 레 즈 노	○ 이 동 : 샌프란시스코 → 요세미티 [약 3시간 30분 소요] ○ 요세미티 국립공원 관리기관 방문 및 벤치마킹 비교시찰 ○ 이 동 : 요세미티 → 프레즈노 [약 2시간 소요] ○ 호텔 투숙 및 휴식
4일차 1.11.(목)	프 레 즈 노 바 스 토 우 라 플 린	○ 이 동 : 프레즈노 → 바스토우 [약 4시간 소요] ○ 도시기반시설 시찰 및 공공시설 탐방 ○ 호텔 투숙 및 휴식
5일차 1.12.(금)	라 플 린 그 랜 드 캐 년 라 스 베 가 스	○ 이 동 : 라플린 → 그랜드캐년 [약 3시간 30분 소요] ○ 도시기반시설 시찰 및 공공시설 탐방 ○ 이 동 : 그랜드캐년 → 라스베가스 [약 4시간 30분소요] ○ 도시기반시설 공공시설 탐방 ○ 호텔 투숙 및 휴식
6일차 1.13.(토)	라 스 베 가 스 바 스 토 우 로 스 엔 젤 레 스	○ 이 동 : 라스베가스 → 바스토우 [약 2시간 30분소요] ○ 라스베가스 문화 탐방 ○ 호텔 투숙 및 휴식
7일차 1.14.(일)	로 스 엔 젤 레 스	○ 로스엔젤레스 문화탐방 ○ 호텔 투숙 및 휴식
8일차 1.15.(월)	로 스 엔 젤 레 스	○ 공식일정 : 로스앤젤레스(LosAngeles)시청 ○ 공식일정 : 다저 스타디움(Dodger Stadium) ○ 로스엔젤레스 공항 출발(23:00) [약 12시간 20분 소요]
9일차 1.16.(화)		○ 날짜 변경선
10일차 1.17.(수)	인 천	○ 인천 국제공항 도착(04:20) / 12시간20분 소요

Ⅲ

출 장 내 용

- 주요 일정 요약 -

일정	방문지역	기관	활동사항
1. 9. (화)	샌프란 시스코	오클랜드 시청·시의회 (City and County of Oakland)	의회운영현황 및 주요 현안에 대한 관심사항 토론
		샌프란시스코 복지부 장애 및 노인서비스부(SFHSA)	장애인 및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운영 사례 시찰
1.15. (월)	LA	로스앤젤레스(LosAngeles)시청	시정의 주요사업의 추진방향 및 우수사례 의견 교환
		LA다저스 스타디움 (Dodgers Stadium)	'스포츠'와 '문화관광'이 융합된 구장 운영에 대한 벤치마킹

오클랜드 시청 · 시의회(City and County of Oakland)

□ 방문개요

- 일 시 : 2024. 1. 9.(화) 10:00
- 장 소 : Oakland City Hall
- 면 담 자 : 캐롤 파이프 부의장 외 시의원
- 주요내용
 - 오클랜드시 주요 정책운영 현황 브리핑
 - 양 지역 간 주요현안 및 요청사항 전달 및 질의응답

□ 「오클랜드시청」 주요 정책운영 현황

○ 인신매매 자문위원회 출범

오클랜드 시의회 의장 니키 포르투나토 바스(Niki Fortunato Bas)·알라메다 카운티 지방 검찰청·오클랜드 경찰국·오클랜드 폭력 예방국·알라메다 카운티 보안관 부서 및 생존자 옹호 단체, 그리고 지역사회 단체 연합과 함께 성 타오 시장이 시장 직속 인신매매 자문위원회를 출범함.

자문위원회의 임무는 오클랜드에서 인신매매 방지 및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관계기관 TF를 구성하고, 사전방지 및 사후제재 및 단계 별로 대책 제공

○ 주요 업무 부서

- 동물서비스, 행정관서, 검사 및 감사관, 지역경찰 검토기관 부서
- 경제 인력개발 부서, 고용조사 및 시민권 준수 부서, 주택 및 역사회 개발, 공원 레크리에이션, 청소년 개발 부서 등

【 오클랜드 시의회 구성 및 운영 】

(의 원) 8명

(선 출) 7명은 결선투표 선출, 1명은 의원으로 선출 또는 지명

(임 기) 4년

(역 할) 시정업무와 일원화 체제이며, 시의 예산 승인, 조례 채택, 다양한 이사회 및 위원회에 위원 임명

□ 질의응답

[질의] 오클랜드 시의 도시 인프라 개선을 위한 교통 및 물류 등 중장기 계획 개요

[답변] 오클랜드는 “참나무가 많은 땅”이라는 의미이며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 서부의 도시로서 항만·공업도시이자 철도·항공·해운의 거점으로 교통은 대중교통 시스템 확장으로 지하철, 경전철, 버스 노선 등을 추가·개선하여 교통 혼잡 해결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을 정책 목표로 하며,

스마트 교통 시스템 도입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교통 흐름을 최적화하고, 신호 제어, 주차 관리, 교통 데이터 수집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 계획하고 있으며,

물류는 항구 시설 및 창고 등 물류 인프라를 확장하여 물류 체계를 향상시키며 지능형 스마트물류 시스템을 도입, 센서, IoT 기술을 활용하여 모니터링하고 시스템 구축을 위해 계획중.

[질의] 오클랜드 시의회 역할

[답변] 시의회는 8명의 위원을 오클랜드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고, 시정의 목표를 우선순위로 설정하고, 예산·결산 의결, 시정 사업중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봉사하는데 도움이 되는 조례를 채택하고, 다양한 이사회 및 위원회에 위원을 임명함

또한, 의회는 지방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역할을 하며, 지방행정·교육·교통·통신·의료·사회안전 분야에서 주요사안을 결정

□ 시사점

- 오클랜드는 캘리포니아 주 서부, 샌프란시스코 만의 동쪽 연안에 위치하여 서쪽의 샌프란시스코와 연결되는 연락선이 취항하면서 건설된 철도·항공·해운의 거점 도시
- 연락선 취항 이후 대륙 횡단철도의 종착역이 들어서면서 미국 서해안에서 가장 중요한 항구인 샌프란시스코에 대한 본토의 문호 역할을 하면서 발전
- 한국과 달리 시의회 의원이 시정과 통합형 운영체계를 접해 봄으로써 다양한 지방의회 운영방안에 대해 생각해보고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 고찰해볼 수 있는 기회 제공
- 지방의회가 주민 대표성을 강화하고,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사회 및 지역주민과의 접점을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하고, 관련 정책의 개발 및 실행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치를 강화하는 유기적 협력 필요

□ 방문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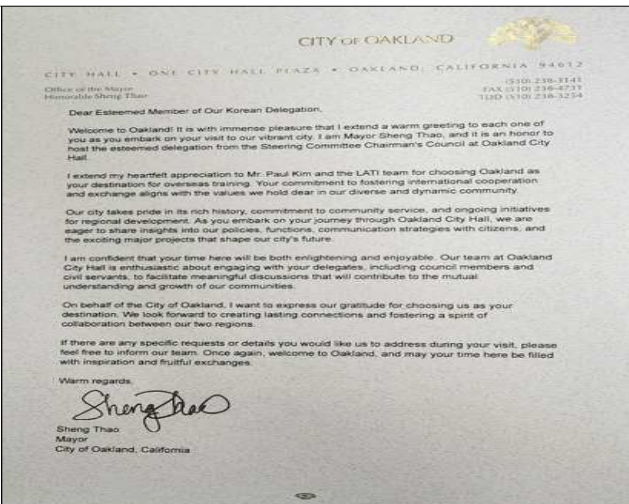
< 질의응답 >



< 기념촬영(캐롤 부의장) >



< 기념촬영(대회의실) >



< 감사 서한문(영문) >

샌프란시스코 복지부 장애 및 노인서비스 부(SFHSA)

□ 방문개요

- 일 시 : 2024. 1. 9.(화) 14:00
- 장 소 : Department of Disability and Aging Services (DAS)
- 면담자 : Cindy Kauffman외 담당자
- 내 용 : 장애인 및 노인 등 사회적약자를 위한 정책운영 사례 시찰

□ SFHSA 기관현황

-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적으로 취약한 시민들을 위해 지역 사회의 복지 및 주민복지서비스 제공
- 아동 및 가족·노인·장애인 등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층과 가족돌봄 청년에게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의료 서비스, 주택 지원, 급여 및 금전 지원 프로그램 등 맞춤형 사회 서비스 통합 제공
- 지역 사회의 사회적 취약 계층에게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함

□ 질의응답

[질의] 지역사회 내 장애인을 위한 주요 정책

[답변] 4개 분야 주요 정책

① 장애인 서비스 평가 및 개선정책

장애인들의 서비스 이용 경험을 평가하고, 그 피드백을 토대로 시스템을 개선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이는 온라인 설문조사, 공개 토론, 회의 등을 통해 이루어짐

② 시설 및 교통의 물리적 접근성 개선정책

도시 시설과 교통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정책으로 이는 보도의 평탄화, 접근 가능한 교통 수단 제공 등 포함

③ 정보 및 기술 접근성 향상 정책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온라인 자원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웹 사이트 접근성 향상, 텍스트-음성 변환 기술 도입

④ 고용 기회 제공 정책

적극적으로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정책으로 이는 고용 기업과의 협력·채용 프로그램의 증진 등의 정책 시행

[질의] 노인들의 사회적 연결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 현황

[답변] 노인들의 사회적 연결성을 유지하고 소통할 수 있는 4개 주요 프로그램 운영 현황

① 노인 센터 및 활동 프로그램

지역 내에 노인 센터를 운영하고,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 제공(예술 클래스, 스포츠, 커뮤니티 이벤트, 공연, 강연 등)

② 프렌드십 프로그램

새로운 친구들과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프렌드십 프로그램 제공(소모임, 티타임, 북클럽 등)

③ 봉사활동 및 참여 기회

지역 사회에서 봉사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 제공
(지역 이벤트 참여, 자원봉사, 지역 정비 프로젝트 등)

④ 운송 서비스

이동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한 병원 방문, 커뮤니티 활동 등
운송 서비스를 제공

□ 방문 사진



< 브리핑 및 질의답변 >



< 기념품 증정 및 기념 촬영 >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 시청

□ 방문개요

- 일 시 : 2024. 1. 15.(월) 10:00
- 장 소 :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 시청
- 내 용 : 시정의 주요사업의 추진방향 및 우수사례의견 교환

□ LA 개요

- 로스앤젤레스의 면적은 87940 km²로 서울특별시의 140배가 넘는 규모. 2010년 미국 인구조사를 기준으로 3,792,621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어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이자, 미국 전체에서 뉴욕에 이어 두 번째로 인구가 가장 많음
- 또한,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인종이 많은 한 곳인 로스앤젤레스 카운티(County) 소재지

□ 주요 추진정책

- 지역사회 안전 : 총기, 마약, 폭력사건 등 공공안전 대비 공권력 강화를 위한 폭력 예방 프로그램 강화
- 저렴한 주택제공 : 저렴한 주택과 세입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투자, 캘리포니아 주에서 5,300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1,000채의 새로운 저렴한 주택을 건설
- 노숙자 중점관리 : 노숙자 거주자가 거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중환자 치료 및 포괄적인 서비스 지원

□ 방문 사진



< 시정 로고 >



< 시청(내부) >



< 기념촬영(LA시청) >

□ 시사점

- 커다란 도시 경제규모와 문화산업 및 아케이드성, 따뜻한 지중해성 기후, 아름다운 해변과 어우러진 특유의 휴양지와 자유로운 분위기에 힘입어 문화 산업이 발전한 도시로 잘 알려져 있지만, 이에 대조되는 악화된 치안 문제와 오래되고 심각한 노숙자 문제, 지나치게 개방적인 분위기 등 여러 가지 모습을 동시에 지닌 모순적인 도시이기도 함.

LA다저스 스타디움(Dodgers Stadium)

□ 방문개요

- 일 시: 2024. 1. 15.(월) 14:00
- 장 소: LA다저스 스타디움
- 내 용: 단순한 야구장 개념을 뛰어 지역내 핫한 관광명소로서 '스포츠'와 '문화관광'이 융합된 최고의 명품구장 운영에 대한 벤치마킹

□ 운영현황

- 다저 스타디움(Dodger Stadium)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야구장으로, 메이저 리그 베이스볼(MLB) 팀인 로스앤젤레스 다저스(Los Angeles Dodgers)의 홈구장으로 운영중임
- 로스앤젤레스 도심에서 북쪽으로 약 2마일(약 3.2킬로미터) 떨어진 엘리시안 파크(Elysian Park)내 소재
- 1962년에 개장 현재까지 계속 운영중

□ 방문 사진



< LA다저스 역사의 공간 >



< LA다저스 경기장 >

□ 시사점

- 다저스 스타디움은 약 56,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야구장이며, 경기가 있는 날에는 레스토랑도 있어 다양한 음식과 음료 부스, 팬존, 기념품 상점 등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음.
- LA 다저스 역사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모든 역사가 담겨져 있는 곳으로 1883년 브루클린 애틀랜틱스라는 이름으로 창단하여 1932년 다저스로 변경후 지금까지의 스토리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역사적 공간
- 또한, 경기 중에는 다양한 엔터테인먼트와 이벤트가 진행되고 야구장 내에는 시야가 뛰어난 전망대가 있어 경기 도중에도 로스앤젤레스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어 더 인상적이었음.

- 이번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공무국외출장은 미국 서부를 대표하는 3개 도시 및 인근 지역을 순방하였다. 당초 계획되었던 일정과 달리 CES와 같은 대형 이벤트에 따른 현지 사정의 변화, 미국을 덮친 북극 한파 등 기상 이변으로 인해 일정에 불가피한 변동이 발생하였으나, 가능한 많은 지역과 기관 방문 외에도 현지의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오클랜드 시청 및 시의회, 샌프란시스코 복지부 장애 및 노인서비스 부처(SFHSA)를 방문하였다.
- 오클랜드 시청·시의회에서는 현지의 악화된 치안 및 다문화를 포용하며 발전중인 지방자치 현황에 대해 관찰하였다.
 - 오클랜드의 다운타운, 시가지에서는 높은 마천루와 함께 깨끗하고 신식인 도심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어 치안이 좋지 않다는 평과 달라보였으나, 도심을 벗어나면 곧 듣던 대로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공폐가와 노숙자(홈리스)의 모습을 쉽게 관찰할 수 있기에 오클랜드가 이의 처치에 고심을 하고 있을 것임이 예상되었다.
 - 시의회에서는 단순히 시청 등 집행부의 감시·견제 역할에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정책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여러 정책의 실현에 있어서도 여러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 오클랜드는 상대적으로 주변 도시에 비해 발달된 곳이고, 상업의 중심 지이기에 본인 지역의 노력만으로 치안 유지 혹은 악화를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음을 절감하고 있다. 때문에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아님에도 주도적으로 주변 여러 도시와 연합하여 치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만했다. 이를 위해 시의회에서도 관련 개선방안의 도입 등 협치를 위해 노력함은 물론이다.



시의회 본회의장 모습

- 시의회 본회의장은 현재 우리시의회가 실시하고 있는 본회의장 등 청사 개선, 전자투표시스템 도입에 참고할만한 모습이었다. 우리시의회가 2024년 올해 들어서야 전자적인 투표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음에 비해서, 오클랜드 의회의 시스템 상태를 보아 이미 도입에 상당한 시일이 지난 것으로 보인다. 시스템은 전자화된 안건의 확인외에도 전체적인 회의 진행 상황, CCTV를 통한 방청객의 모습도 확인이 가능했으며, 투표 및 호출의 기능을 가진 버튼을 별도로 비치하고 있었다.

- 전체적인 본회의장의 배치에 있어서도 의원석이 의장이 아닌 방청석을 향하고 있는 모습에서 대중친화적·시민지향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의원석의 단상의 높이가 그리 높지 않은 점, 그리고 방청객들이 위에서 의원석을 향해 내려다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의원석이 모두 개방되어서 방청석의 시각에서 사각이 없다는 점, 그럼에도 고풍스럽고 다소 위압적인 건축 디자인을 띄고 있다는 점 등,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국가답게 민주주의적의 의의를 충실히 반영한 구조임에도 최소한의 권위주의적 면모를 발견할 수 있었다.
 - 오클랜드와 대구와의 연계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오클랜드는 수성구와 자매도시 결연을 맺은 상태이며, 오클랜드 측의 실질적인 대담을 주도한 캐롤 부의장도 대구 방문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대구의 대표 축제로 거듭난 치맥 페스티벌과도 인연을 맺고 있으며(관계 공무원이 한국어대로 '치맥'이라고 언급), 오클랜드 내 지역 맥주 양조장에서 치맥 페스티벌 기념 맥주를 생산하기도 한다는 언급이 있었다.
- 샌프란시스코 복지부 장애 및 노인서비스 부처에서는 샌프란시스코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 지원 내역 및 관련 국내 실정과의 비교시찰이 있었다.
- 우선 해당 부처의 조직이 인상깊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공공기관에서의 역할이 중요하고, 공공기관과 주변 가족의 노력으로 실질적인 복지 활동이 주로 이뤄짐에 반하여, 이 부처에서는 구성과 활동 전체가 공조적·

민간단체·자원봉사자가 혼재되어 협치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목적에 우선하는 전제가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이 아닌 지역 전체의 건강과 자활을 염두하는 듯하여 흥미로웠다.

- 민간과 자원봉사자가 큰 축을 이루고 있던 특징상, 사무실내 근로자와 현장인력에도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융합되어 있었다. 실제 우리를 면담했던 담당자들 가운데에는 한국어가 여전히 능숙한 한국계 자원봉사자가 있었으며, 한국과의 비교 질의응답에 큰 도움을 주었다.
-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예상과 달리 복지분야에 있어서도 상당한 행정력을 사용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돌봄과 같은 가정 지원 서비스의 경우, 한국은 최대 1달 80시간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었으나,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283시간까지 가능하다고 하여 그 차이가 컸으며, 미국 전체적인 평균은 100시간이라고 하여 미국 전체와 비교했을 때도 지원하는 기간이 더 깊을 알 수 있었다. 동시에, 지방자치의 하나로서도 지역별 차이를 느낄 수 있었고, 또한 이것이 지역구성원과 합의·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임도 짐작할 수 있었다.
- 지적장애의 경우, 한국은 1-4등급의 단계를 두고 있었으나, 샌프란시스코는 1-5등급으로 한 단계 더 세분화된 분류기준을 갖고 있었다. 순위도 한국과 반대여서, 지원의 거의 필요 없는 1등급에서부터, 2등급은 지시하에 활동 가능, 3등급은은 종종 도움 필요, 4등급은 많은 도움 필요, 5등급은 독립 불가 등의 체계가 잡혀있었다.

- 다만, 우리가 면담한 부처의 특성상 치료나 응급서비스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던 것이 아쉬움이 남는다. 다만 반대로 말하여, 위 치료 혹은 응급서비스에 가기 전까지 사회적 자원을 활용하여 실생활 중에서 최대한 악화를 늦추는 것이 주목적인 곳이라는 점은 감안하여야 한다. 이 부처는 생활 속 보호와 지원을 통해 병원이나 요양원에 가는 것을 막는 것이 목표이다. 만일 이 사전적 처방이 느슨해져서 병원 입원·치료 등까지 악화된 것은 곧 국가적 비용의 소모가 되기 때문이다.
- 요컨대, 개인주의적이며 자본주의를 택하고 있기에 사회주의적 면모가 적을 것 같은 미국임에도, 각 지역별로는 지역사회의 공식적·비공식적인 노력의 교집합을 통해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사회 구성원을 수호하고 있으며, 이 노력은 큰 틀에서 결과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우리 지역에서도 복지 예산을 소모적이나 선심성 처방으로 생각하지 않고, 큰 사회적 비용이 절감된다는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나아가 이에 대한 지역 구성원의 합의를 도출하여 폭넓은 지역민의 지역 복지활동에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향후 정책이 추진되도록 함이 복지에 대한 인식 개선이나, 행정력의 낭비 절감 등 다차원적인 면에서 옳을 것이다.

- 로스 엔젤레스에서는 LA시청과 LA다저스 스타디움을 방문하였다.
- LA시청에서는 주요 업추 추진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청취하고, 대체로 각 참석자들의 관심분야에 대한 질의가 시행되었다.
 - LA는 다인종, 특히 멕시코계 이민자와 한국계 이민자 등 많은 인종과 문화가 뒤섞여 있는 곳이기에 법치주의가 강조되는 미국에서도 더더욱 법의 해석과 집행에 엄격하고, 또 법을 집행하는 관공서의 권위도 높은 곳이라고 한다. 미국의 태생적으로 원주민(아메리카 인디언)을 비롯, 각 나라의 이민자로 구성된 나라이기에 이를 통합할 문화적 일체성이 부족하였고, 따라서 합의로 만들어진 법이 강력한 권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 그러나 코로나19 시대를 통과해 오며 기존의 사회적 구조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으며, 특히 비교적 개방적인 분위기와 다민족이 모여 사는 LA와 그 인근에서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LA의 경우 샌프란시스코와 마찬가지로 노숙자(홈리스)가 큰 문제인 상황이다. 마약은 주로 인근 멕시코에서 수입되어 홈리스를 통해 퍼져 나가는 양상을 띠며, 홈리스는 별다른 수입이 없기 때문에 마약을 얻기 위해 강도와 절도를 저질러 크고 작은 범죄의 온상이 된다.
 - 이 악화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정책으로 홈리스 이주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 공권력 강화와 자원봉사자를 확보하여 홈리스의 전수 조사·신상파악, 거주 현황을 파악한 뒤 이를 분산시켜 홈리스 집단을

해체하고 있다. 그리고 부족한 경제적 상황을 완화시키기 위해 각종 주거지 제공, 물질적·의학적 지원을 통하여 일상에의 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미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공권력이 강하고 존중받으나, 역시 마찬가지로 예산과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치안은 공권력 강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경찰 인원 충원 및 확대, 지급 보수의 상향하는 등 공권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 사회적 보험 제도 또한 운영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자연재해 등에 대해 무상 보험을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다. LA의 경우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 강력강도를 당한 시민에게도 개인이 당한 재해와 준하는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해 시청 차원에서 보험을 마련하고, 피해를 당한 선량한 시민에게 충분한 수준의 상해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 LA는 인종의 용광로를 대표하는 지역으로서 민족적 다양성과 지리적 이점을 통해 급속히 성장해왔지만, 현재는 그에 대한 반작용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대구는 마약이나 인종간 마찰, 권총 강도 등의 문제와는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편이나, 최근 북구 이슬람 사원 갈등, 성서산업단지의 슬럼화, 이에 따른 해외근로자의 타지역 확산 등 유사한 성격의 문제가 서서히 노출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 관련 범죄 발생이 아직은 그리 대두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사전적으로 대응책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예방을 감안함이 좋을 것이며, 나아가 우리 사회 일원으로서의 포용 및 역할 부여, 그리고 공동체 의식 함양을 통하여 기존 대구 사회와 구별된 공동체가 아닌 하나의 공동체 안의 다양성의 증대를 위해 노력하여야겠다.
- 전반적으로 LA의 사회적 문제는 총기 정도를 제외한다면 앞으로 우리 지역 사회에서도 나타날 것이 예상되므로, 앞으로도 LA의 정책 입안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 마지막으로 대구는 LA한인사회와의 교류가 아직 미진해 보이는바, LA의 관련 정책 도입 뿐만 아니라 미국 내 한인사회 문화의 상호전파 및 교류에 관심을 기울이면 좋을 것이며, 향후 미국에의 기업 진출 발판을 위해서라도 한인사회에 관심을 갖고 지역정책적으로 교류와 진출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겠다.

○ LA다저스 스타디움에서는 단순 스포츠 경기를 넘어서 지역민과 함께하는 거대한 문화사업의 동태를 엿볼 수 있었다.

- 우선 구장 구조적으로 미국의 경우 차량 문화가 일반적이기에 현재 차량 보유대수가 늘어나고 있는 한국의 전철을 이미 났은 것으로 보인다. 구장의 위치와 구조상 도보로 접근하는 것보다 차량으로 접근할 것을 우선적 고려하였고, 때문에 도심 외곽지의 지대가 높은 곳에 지어져서 넓은 주차장 확보, 주차장에서 바로 이어지는 입구들, 그리고 높은 지대의 위치에서 나오는 LA의 경치 감상이 가능했다.

- 대구의 삼성라이온스파크의 경우 외곽지에 있으면서 지하철 이동을 감안한 위치에 있기는 하나, 관중 대비 구장의 주차장 확보가 부족한 상황이며, 경기가 열리는 때에는 주변 교통망에 큰 무리가 갈 정도이다. 우리나라도 차량 이동이 보편화되는 추세이니, 향후 접근성을 조금 희생하더라도 차량 편의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당장 현재의 라이온스파크의 주차장 확보도 부족한 상황이므로 이 부분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 LA구장에서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고, 구장 내에 박물관의 형태로 운영하여 관광자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과거 야구가 백인의 전유물이었던 등장한 흑인 선수에 대한 예우였다. 그를 특별히 기리며 영구결번 중에서도 한 계단 높은 대우를 하고 있어, 전설적인 선수뿐만 아니라 사회의 개방성과 다민족의 성공적 결합 과정의 일면을 보게 한다.
- 같은 선상에서 1990년대 중반 박찬호가 이름을 날리던 시절, 구단 차원에서 경기 전 한인들을 위한 행사를 개최하고, 특정일을 한국의 날로 선포하는 등 지역문화 증진과 다양화의 한 축을 담당했었고, 이후로도 다양한 민족의 선수에 대한 지원책과 홍보책을 강화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재는 일본의 선수 오타니를 적극 활용하여 LA 내 일본계 미국인들의 뿌리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고, 일본의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여, 스포츠 문화 관광이라는 우리 사회에는 아직 부족한 경제적 이윤을 창출하는 중이었다.

- 이상의 내용을 대구의 삼성라이온즈파크와 관련지어보자면, 일단 현재 지어진 위치를 바꿀 수는 없지만, 적어도 앞으로는 증가될 차량을 감안해서 주변 주차시설의 확충이 필수적이다. 또 역사성에 있어선 운영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지 않기 때문에 아직 발전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할 것이며, 향후 구장의 박물관화를 고려하여 관련 자료의 수집과 보존, 물품의 배치와 큐레이팅 등에 구단이 관심을 가지고, 시에서는 지원을 강구 해봄직할 것이다.
 - 마지막으로 구단과 시에서는 다문화사회가 되어가는 우리지역을 감안, 적극적으로 여러 배경의 우수한 선수가 양성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나아가 이것이 우리 지역의 새로운 정체성과 자랑스러운 스포츠 문화, 그리고 경제적 이윤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청사진을 구상하여야 할 것이다. 과거 박찬호와 현재의 오타니가 LA구단 운영의 큰 받침목이 되고, 전세계 각지에서 찾아오게 만드는 원천이 된 것처럼 말이다.
- 이번 미국 선진지 견학을 통하여 특히 다민족사회의 통합과 악화되는 사회치안의 개선을 위한 사회적인 노력에 큰 시사점을 느꼈다. 미국의 태생적인 장점이자 약점인 다양한 민족과 사회의 통합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었다. 이는 한국과의 과거와의 큰 차이점이었으나 앞으로 한국 사회가 겪게 될 필연적인 미래이기도 할 것이다. 미국의 환경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사회와 문화 전방위적으로 겪게 될 혼란과 변화에 대비하고, 오히려 다양성과 성장잠재력을 트이게 할 사회잠재력의 함양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붙임 1] 참가자 명단

소 속	직 위	성 명 (영문)	수 행 원		비고
			직위 (직급)	성 명 (영문)	
부 산	운영위원장	강 무 길 KANG MU GIL	팀장 (행정5급)	공정석 KONG JEONGSEOK	
대 구	"	전 경 원 JUN KYUNG WON	행정7급	이명석 LEE MYEONGSEOK	
인 천	"	한 민 수 HAN MINSOO	행정6급	김병용 KIM BYOUNGYONG	
광 주	"	강 수 훈 KANG SUHUN	수석전문위원 (행정4)	이 진 LEE JIN	
대 전	"	송 활 섭 SONG HWALSUP	행정7급	박준현 PARK JUNHYUN	
세 종	"	유 인 호 RYU INHO	행정7급	고경환 KO KYEONGHWAN	
경 기	"	김 정 영 KIM JUNG YOUNG	행정7급	박재현 PARK JAEHYUN	
강 원 (단장)	"	심 영 곤 SIM YEONGGON	행정8급	박태성 PARK TAESUNG	
충 북	"	김 호 경 KIM HO KYUNG	행정7급	권오철 KWON OCHUL	
충 남	"	방 한 일 BANG HANIL	사무7급	정수자 JEONG SUJA	
전 북	"	김 정 수 KIM JUNGSOO	팀장 (행정5급)	신현관 SHIN HYUNKWAN	
경 남	"	신 종 철 SHIN JONGCHEOL	수석전문위원 (행정4)	윤효석 YUN HYOSEOK	
협의회	의사2과장	김 수 영 KIM SOO YOUNG			
	주 무 관	정 영 균 JEONG YOUNGGYUN			
		최 현 애 CHOE HYUN AE			
		배 영 관 BAE YEONGGWAN			

※ 불참 시도(5) : 서울, 울산, 전남, 경북, 제주